

Yoon Jiwon
Web Design & Graphic Design

Portfolio

e-mail: wannit921@kakao.com

Phone: 010-2620-0326

Contents

- 
- 0. 디자인 이력서
 - 1. 폴리곤 아트
 - 2. 팝아트
 - 3. 매쉬 아트
 - 4. 아이소메트릭
 - 5. 리플릿 디자인
 - 6. 편집 디자인
 - 7. 패키지 디자인
 - 8. BIP 통합 디자인
 - 1) 봉투 디자인
 - 2) 간판 디자인
 - 3) 사원증 디자인



광주광역시 북구

만 22세

010-2620-0326

@jiwon_ll

wannit921@kakao.com

Education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졸업
(2017)

한울직업전문학교
모던웹디자인 과정 수료
(2021.07.28~2022.01.06)

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2021)

Tool Skill



Adobe Illustrator (50%)



Adobe Photoshop (50%)



Adobe InDesign (45%)



Figma(60%)



Html & CSS & JQuery (50%)

Hobby



디저트 맛집
찾아다니기



홈베이킹



건반 연주하기

Certificate



GTQ 1급



웹디자인 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 기능사(필기합격)

1. 폴리곤 아트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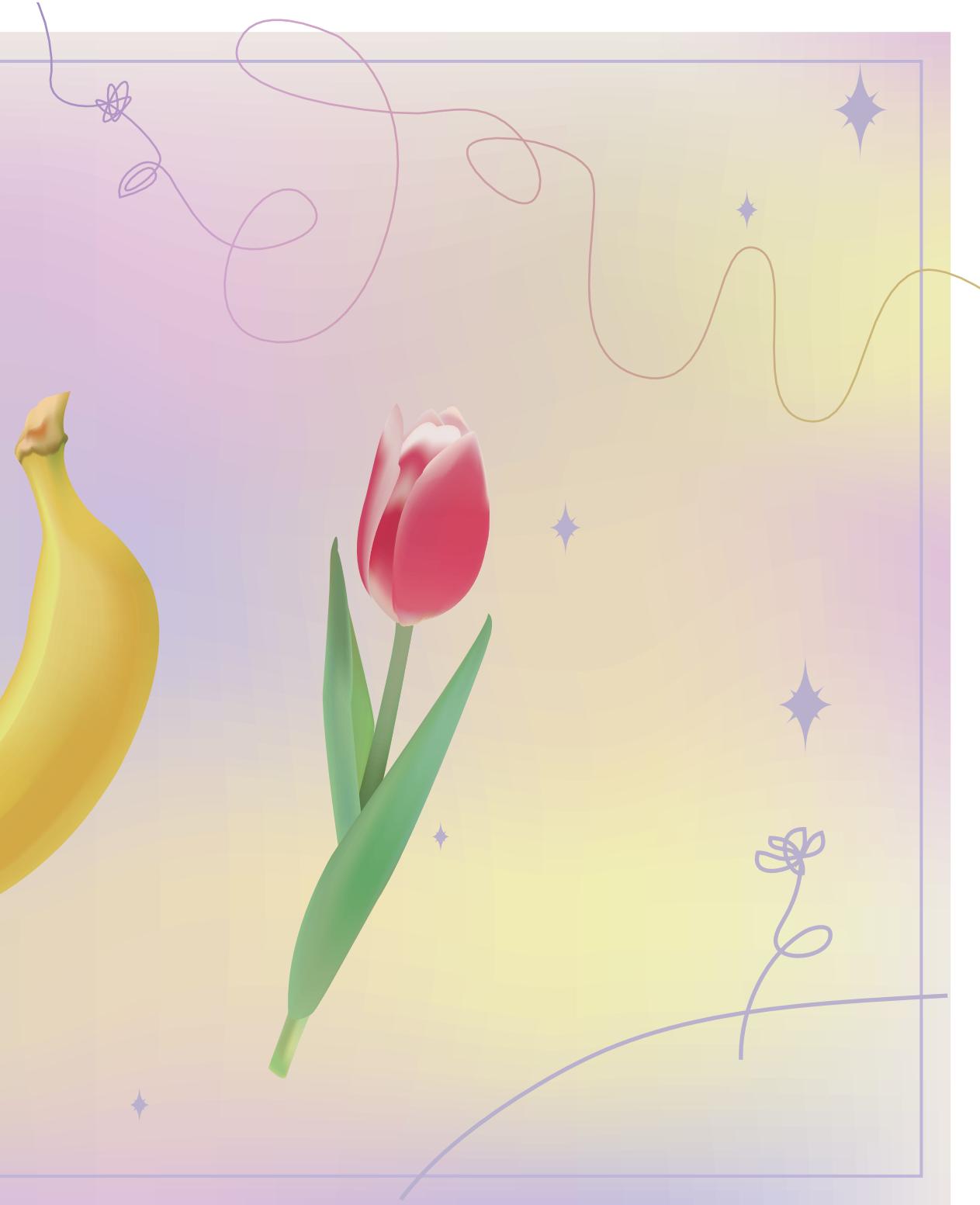
2. 팝아트

Ai



3. 매쉬 아트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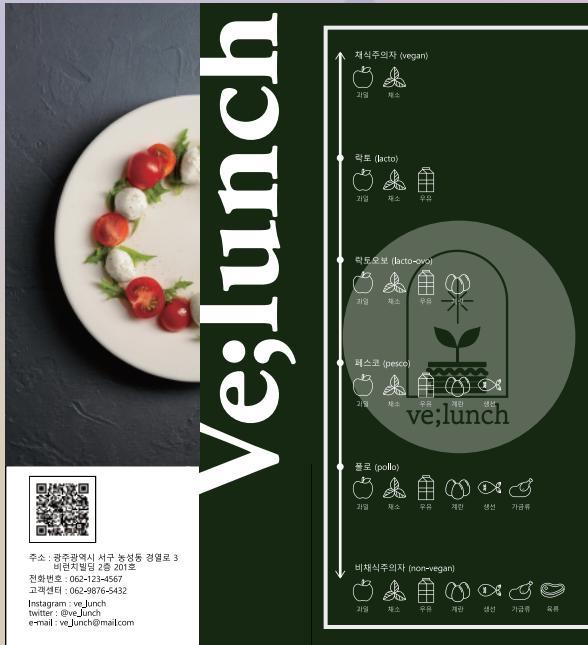
4. 아이소매트릭

Ai



5. 리플릿 디자인

Ai Ps



6. 편집디자인

Ai Ps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전면에서 활성화 호흡을 자행했던 두 친구는 이제 끝도 없는 원색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물론 어디로 헤치고 드는 걸은 심미적으로 VSX를 한없이 좋아하는 걸은 아니지만요. 어느 날 어디 브록(톰 하디)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연락실처럼 퀄리티는 좋지만 배우는 거는 나쁘습니다. 아픈 곳과 같은 오른쪽 대중음악의 시장이 도려울 것이라는 미연상의 말을 드러내더니 그를 침몰시키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 괴물을 뱃속에 헤아리는 미연상의 연인 슈리크(크리스 해리스)를 찾으러 갑니다.

많은 사람이 클래식 음악은 어렵다고 말을 한다. 좁쌀한 마음이 끝 때면 그것도 미분방 음의 내시는 지루한 음악이라는 말만 듣지 않아도 마음에 히어번 미스를 떠나면 만도 하게 됩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보기는 '클래식은 고요로마 시민의 최고계급을 지칭하는 마린어(\grid라사구스)'에서 유래된 단어로 오늘날에는 가장 안정적이며 전형적이고 최고의 예술 작품을 나타내는 말로 통용된다.

최고의 예술 작품을 나타내는 의미가 없으면 이 치구상에 클래식이라는 예술이 어떻게 또 다른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 존재의 가치를 빛낼 수 있었겠습니까?

안정적이며 전형적인 클래식은 때로는 어렵다고 하고, 때로는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특구의 이해를 즐기 위해 자신만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을 기아하되 또 다른 모습의 예술 작품으로 탄생시킨 클래식을 사랑하는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이 노력한 그 모임을 소개한다.

출처 : [광주in](http://www.gwangjuin.com)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1997년 한국영화 한 펩이 인기를 끈다. 그해 한국영화 홍제 2위를 기록하며 대중상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고 여주인공으로 출연했던 진도연은 최상금 배우로 자리매김을 한 영화 '접속'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영화가 성공하면서 주제음악으로 사용되었던 음악까지도 만기를 염두에 두면서 한동을 감달하는데, 영화 '접속'에서 사용되었던 음악은 사랑 본래 'A Lover's Concerto',로, 이 음악은 당시까지도 많은 사람이 바흐의 '마뉴네트(BWM 114)'로 알고 있던 클래식의 또 다른 모방의 멋을이다.

1965년 미국의 상어솔리이터였던 샌디 린저(Sandy Linzer)와 데니 렌델(Denny Randell)이 발표한 이후 크게 인기를 끌어 여러 가수에 의해 속히 되어 범교된다. 하지만 한동까지도 사람들은 사랑 본래 'A Lover's Concerto'를 것이다.

이외에도 빠듯 출신의 그룹은 바흐의 'G 성상의 아리아',를 샘플링(sampling)하여 'Everything's gonna be alright',이라는 노래로 발표했고, 미국 가수 에릭 카펜(Eric Carmen)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제2번 2악장,의 열로디를 도입 부분에 사용하여 'All by myself'라는 노래로 큰 인기를 끌었다.

가장 유동 양 일련에서는 The Venus라는 그룹이 베트남의 '밀리제'를 위하여, 열로디를 그대로 사용한 새 유틸디즈(Odeon) 품으로 변환시켜'키스는 높으로(아 쿠님을 드니 쿠)',라는 타이틀의 가로로 불렸고, 가수 하리하라 아야카(平野綾香),의 열로디를 도입 부분에 사용하여 'All by Jupiter',열로디를 노래로 부르고 있다.

도자크트의 경우는 행재 등으로 볼리고 있지만, 본래는 상상이었던 '빈박반박' 혹은 '별'의 열로디를 그대로 활용하여 12번주곡의 클래식 음악으로 예술상의 기질을 발휘하여 현재까지도 전 세계의 사람이 듣고 연주하며 사랑하는 음악으로 탄생시켰다.

이전에는 독일 출신의 그룹 sweet box는 베르트의 '상상상의 아리아',를 샘플링(sampling)하여 'Everything's gonna be bright',이라는 노래로 발표했고, 미국 가수 에릭 카펜(Eric Carmen)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제2번 2악장,의 열로디를 도입 부분에 사용하여 'All by myself',라는 노래로 큰 인기를 끌었다.

가장 유동 양 일본에서는 The Venus라는 그룹이 예술 베트남의 '밀리제'를 위하여, 열로디를 그대로 사용한 새 유틸디즈(Odeon) 품으로 변환시켜'키스는 높으로(아 쿠님을 드니 쿠)',라는 타이틀의 가로로 불렸고, 가수 하리하라 아야카(平野綾香),는 영국 작곡가 구스터스 풀스터의 '주피터-Jupiter',열로디를 노래로 부르고 있다.

1997년 한국영화 한 펩이 인기를 끈다. 그해 한국영화 홍제 2위를 기록하며 대중상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고 여주인공으로 출연했던 진도연은 최상금 배우로 자리매김을 한 영화 '접속'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영화가 성공하면서 주제음악으로 사용되었던 음악은 당시까지도 사랑 본래 'A Lover's Concerto'를 것이다.

이전에는 독일 출신의 그룹 sweet box는 베르트의 '상상상의 아리아',를 샘플링(sampling)하여 'Everything's gonna be bright',이라는 노래로 발표했고, 미국 가수 에릭 카펜(Eric Carmen)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제2번 2악장,의 열로디를 도입 부분에 사용하여 'All by myself',라는 노래로 큰 인기를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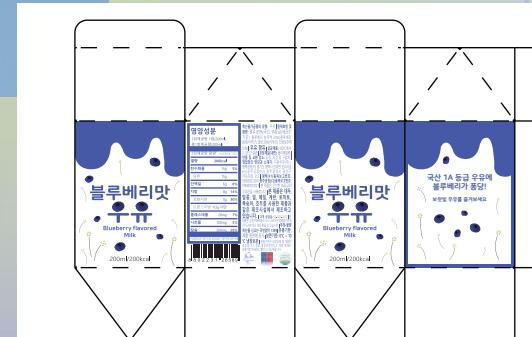
모차르트의 경우는 현재 등으로 볼리고 있지만, 본래는 상상이었던 '빈박반박' 혹은 '별'의 열로디를 그대로 활용하여 12번주곡의 클래식 음악으로 맥박상의 기질을 발휘하여 현재까지도 전 세계의 사람이 듣고 연주하며 사랑하는 음악으로 탄생시켰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자신의 창작적인 능력을 끌어내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출처 : [광주in](http://www.gwangjuin.com)

7. 패키지 디자인

[Ai] [Ps]



8. BIP 통합 디자인

1) 봉투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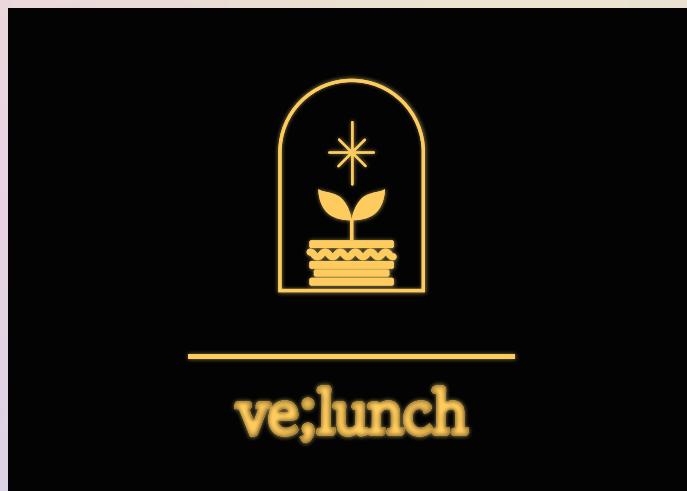
Ai



8. BIP 통합 디자인

2) 간판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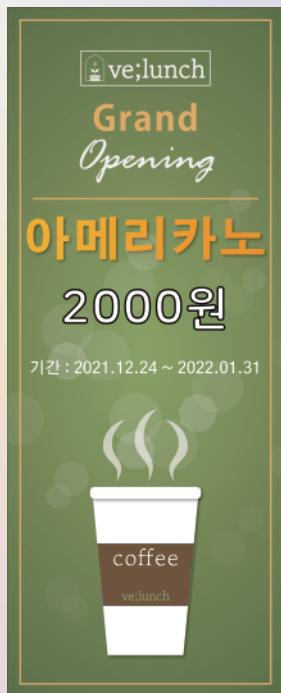
Ai Ps



8. BIP 통합 디자인

4) 배너 디자인

Ai Ps



8. BIP 통합 디자인

3) 사원증 디자인

Ai Ps

